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주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1월 6일 월요일 (음 9월 18일) 제192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K-리그 우승의 영광, 여러분에게



전북도에서는 2년만에 K리그를 제패한 전북현대 FC 백승권 단장, 최강희 감독, 선수단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 및 환영행사가 열렸다. 지난 3일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광장에서 전북현대 서포터스와 도내 축구팬들을 대상으로 전북현대 이동국, 김진수, 김신욱 선수 등이 참여해 팬 사인회 등 다양한 축하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이날 행사에서 이재성 등 선수들이 우승 기념볼을 던지고 있다. (사진 왼쪽) 송하진 전북지사가 최강희 감독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 /김진성 기자

“소방관 처우개선 국가가 나서겠다”

문 대통령, 소방의날 기념식서 국가직 전환 추진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소방관의 건강과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사진 3번>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 중앙소방학교 소방종합훈련타워에서 열린 제55주년 소방의날 기념식에서 “더 이상 사망감과 희생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가 나서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언론 보도로 알게 되는 순직 사고 외에도 화재와 구조 현장에서 하루 한 명꼴로 공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이는 부상만이 아니다. 위험한 작업과 참혹한 사고현장, 불규칙한 교대근무 등으로 10명 중 7명이 건강 이상 판정을 받았다.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한 자살자가 순직자보다 더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내년 전주 생활임금 8810원

(공공부문)

시, 올해 7760원보다 13.5% 인상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7530원보다 많아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등 523명에 적용

전주시의 내년도 공공부문 생활임금이 8,810원으로 결정됐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의미하며, 현재 전주시를 포함한 전국 70여 지자체에서 도입·시행중에 있다.
지난 3일 전주시생활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공공부문 생활임금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전주시 공공부문 생활임금액을 8,810원(최저임금비 117%)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전주시 생활임금인 7,760원보다 13.5%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정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인 7,530원보다 1,280원이 많은 금액이다.

또한, 전주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액은 현재까지 생활임금이 결정된 국내 61개 지자체 평균인 8,777원과 비교해도 다소 높은 금액이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전주시 소속 기간제근로자와 시설관리공단, 출연기관 기간제근로자 등 523명에 적용된다.
이에 앞서, 시는 민선6기 출범 이후인 지난 2014년 12월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를 공포하고,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을 교통, 주거, 교육비용 등을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적정 임금을 책정해 보장해주는 생활임금제를 전북지역 최초로 도입·시행해 오고 있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생활임금위원회가 새 정부 들어 올

해 6,470원에서 내년도 7,530원으로 큰 폭으로 인상된 법정 최저임금 인상을 감한 생활임금 인상을 결정하게 된 것 같다”라며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으로 공공부문의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고, 생활임금제가 민간영역으로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북교총 회장에 이상덕 교장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 제32대 회장으로 이상덕 전주 금평초 교장(사진)이 당선됐다.
지난 3일 전북교총에 따르면 회장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이상덕 금평초 교장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이에 이상덕 회장은 앞으로 3년간 전북교총을 이끌게 된다. /정해은 기자



전북도-고창군, 임지식품 라온푸드시스템과 투자 협약 식품업체 고창에 등지

고창복분자농공단지에 임지식품, 549억 투입 내년 1월 라온푸드, 50억 투입 7월 착공

고창군(군수 박우정) 복분자농공단에 만두 등을 생산하는 식품전문기업 (주)임지식품과 빵류 제조업체인 (주)라온푸드시스템이 입주한다.
지난 3일 군청 회의실에서는 박우정 고창군수, 유희숙 전북도 경제산업국장, 최인규 군의장, 조만규 의원, 이호근·장명식 도의원과 (주)임지식품(회장 마영모), (주)라온푸드시스템(대표 유승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식이 열렸다.
이날 투자협약을 체결한 (주)임지식품은 고창군 복분자농공(특화)단지 2만 8,779.5㎡부지에 549억을 투자해 오는 2018년 1월 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주)라온푸드시스템도 1만2,302.3㎡부지에 50억원을 투자해, 2018년 7월 공장을 준공할 계획이며, 두 기업이 이

를 통해 210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임지식품은 1989년에 설립된 회사로 소만두, 불만두, 군만두, 찜만두 등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홈쇼핑에서도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는 식품 전문 기업으로,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HACCP(해썬·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바탕으로 통합 품질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 이래 끝판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노력해오고 있다.
또한 (주)라온푸드시스템은 2013년 창업한 신생기업으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학교 급식용 및 군납용 빵을 제조·납품하고 있는 기업으로 품질 제일주의, 고객제일주의의 정신으로 원재료의 선택에서부터 고도화 되어 가는 고객 요구의 만족을 위해 철저한 검토, 최신 설비와 축적된 기술력으로 노사 혼연일체가 되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고창=김명식 기자